

三國時代의 建築文化

Korean Architecture History of the Three Kingdom Period

張慶浩 / 문화재연구소장
by Chang, Kyung-Ho

百濟의 建築

宮闕 및 祠廟

백제의 궁궐과 사묘 건축에 관한 기록은 별로 없을뿐 더러 모두가 <三國史記>에 나타난 것들이다. 이들을 보면 <表1>과 같다. 위와 같이 삼국사기에 기록된 내용도 아주 빈약한 것이다. 이외에도 220년에 宮城西門에 불이 났다든가 269년에 패성이 紫宮에 나타났던 일 320년 宮西에 射臺를 만들어 매달 활쏘기를 하였다는 것, 475년 고구려의 간첩으로 들어온 道琳의 꾀에 넘어가 城을 쌓고 그안에 궁실과 閣臺射를 짓되 장엄하지 않은 것이 없었다라고 하며 또 500년에는 臨流閣을 宮城 동쪽에 세웠는데 높이가 다섯길이나 되고 또 연못을 파고 기이한 새들을 기르므로 신하가 상소하니 궁문을 닫아버렸다 한다. 이렇게 하여 세워진 임류각에서 왕은 신하를 데리고 밤세워 환락 하였다 하니 백제의 궁실은 처음에는 儉素한 건축을 하였으나 그 도읍을 熊津과 사비로 옮긴 후대에 와서는 너무 화려하게 꾸미어 결국 국력의 낭비와 정신적 부패로 나라를 잃은 결과를 초래하게 된 것이다.

또 史記 武王條에는 「三月穿池於宮南引水二十余里 四岸植以楊柳水中島嶼擬方丈仙山」이라고 하여 궁전의 남쪽에 연못을 파고 20리에서 물을 끌어대고 사방호안과 수중섬에는 버드나무를 심고 방장 선산을 모방하였다고 하여 당시 造景이 고도로 발전하고 화려 하였음을 알 수 있어 경주의 雁鴨池도 이와같은 백제의 선형적 조원이 이루어 짐으로써 그와같은 極致의 작품이 생겨날 수 있었던 것으로 믿어진다.

그러나 지금 실제 백제의 궁지로 확인된 것은 거의 없다. 다만 학자에 따라 견해를 달리하는 전술한 공산성내 쌍수전앞 건물지를 백제 왕궁지로 推定하고 있는 것과 (忠淸南道, 公州師範大學博物館, 公山城 百濟推定王宮址發掘調查報告書, 1987) 부여박물관 앞 宮闕址, (86년 충남대학교에서 발굴조사중) 그리고 益山 王宮里에 소위 왕궁터등이 거론되고 있지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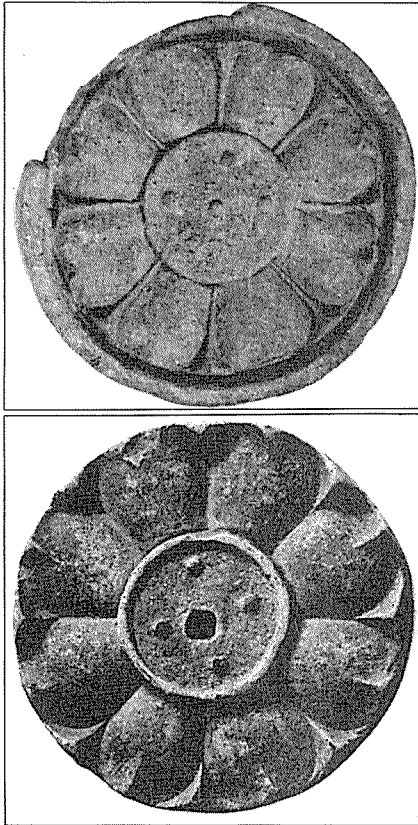
이들이 궁궐터라는 것은 아직 더 조사연구 되어야 할 것이다.

백제의 寺院建築

삼국시대 건축문화는 우리나라에 불교가 전래되면서 더욱 발전하게 되었고 결과적으로 통일신라 시대의 건축문화 황금기를 이룩하는 기반을 형성하는데 밑거름이 되었다. 이 중에서도 삼국중 가장 先進的으로 우리나라 傳統建築 형식을 이룩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것이 백제의 불교 건축문화라고 믿어진다. 백제에 불교가 처음 들어 온 것은 고구려가 불교를 받아들인 12년후 384년(枕流王 元年)에 중국의 摩羅難陀에 의하여 전해진 것이다. 불교가 전래된 이듬해에는 漢山에 佛寺를 조영하고 그후 백제가 도읍을 공주를 거쳐 부여로 옮기고 나서 聖王代에 梁으로부터 工匠과 畫師를 초청하는 등 불사의 조영이 성황을 이루고 또 일본에 불교를 傳해주는 등 활약이 컸던 것으로 믿어진다. 그러므로 백제의 사원 건물지가 주로 밝혀지는 것도 거의가 부여지방이고 한강 유역이나 공주 지방에서는 거의 밝혀지지 않고 있다. 문헌 기록에 의하여 밝혀진 백제 사원을 들어보면 <表2>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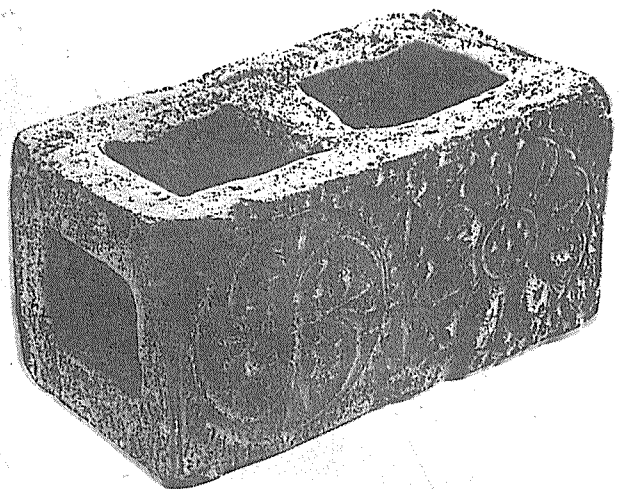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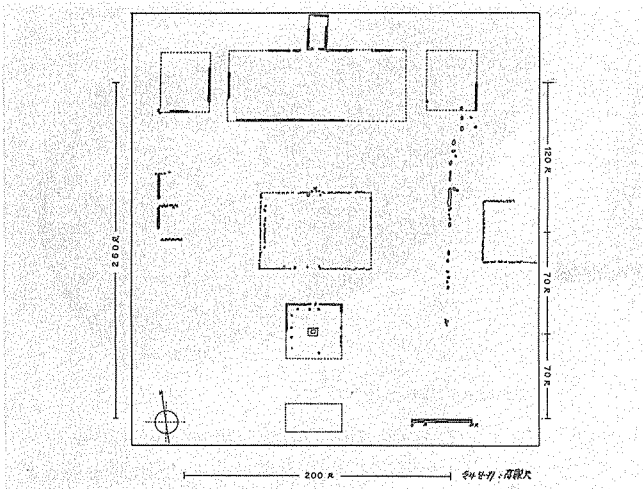
다음 調査를 통하여 알려진 추정 백제사지는 많이 있으나 발굴조사를 통하여 백제사지임이 밝혀진 것은 주로 부여지방과 익산 지역의 사지 몇곳으로 알려져 있다. 이들 사지중 중요한 예를 들어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軍守里寺址(부여읍 군수리 소재) 이 사지는 1935~1936년 일본인 石田茂作에 의하여 발굴조사 되었다. 발굴결과 사지의 가람이 南向한 一塔式 伽藍으로 남쪽에서 부터 中門, 塔, 金堂, 講堂이 남북축을 맞추어 배열되고 중문지의 양측과 강당지 양측(여기서는 鍾·經樓址로 추정되는 방형건물지가 각 한개씩 놓여 있었으므로 화랑지가 이곳에 연결됨)을 연결하는 화랑지가 중심 가람을 방형 평면을 이루면서 둘러져 있다. 중문지에서 탐지까지의 중심거리는 당시



▲ 軍守里寺址 出土 蓮華文 甌막새

◆ 張慶浩
32년생으로 한양공대 건축공학과를 졸업(61) 하고 1975년 문화재연구소 미술공예연구실장에서 76년 홍익대에서 석사학위 및 85년 2월 동대학원 박사과정 수료. 87년 3월 제 2 대 문화재 연구소장에 취임, 재직중이다.



圖面 1. 扶餘 軍守里寺址 伽藍圖

▲ 軍守里寺址 出土 蓮華文 寸막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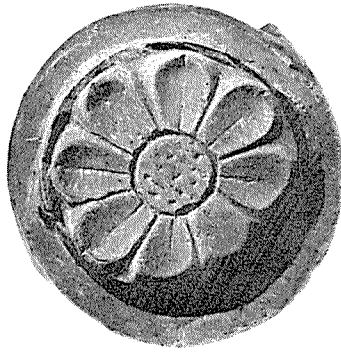
사용했던 營造尺인 高麗尺(약 35.5cm)으로 환산하면 70척이 되며 탑지에서 금당지까지 중심거리 역시 70척이 되며 금당지에서 강당지까지는 100척이 되어 그 거리의 비는 1 : 1 : 1.43이 된다. 또 좌우 양측 화랑지간의 거리는 고려적으로 약 200척이 됨으로써 화랑 내곽은 1 : 1.2의 矩形이 된다. 주요 건물지를 살펴보면 탑지는 기단 한번 길이가 고려척 40척의 정방형 인데 보고서에 나타난 유구도면을 보면 柱間이 5間으로 추정이되며 건물지의 중심에는 心礎石이 地表下 6尺되는 곳에 있었다. 이렇게 심초석이 지하에 놓이는 것은 일본의 四天王寺나 法隆寺의 목탑지에서 그예를 볼수있고 후술할 부여 金剛寺址에서도 밝혀지고 있어 7세기초 이전에 백제의 목탑에 흔히 사용되었던 기법으로 추측된다. 金堂址는 기단의 규모가 동서 약 27m 남북 약 18m였고 기단은 기와를 세워 쌓은 瓦積기단이었다고 한다. 또 강당지는 동서 약 45.5m 남북 약 18m의 역시 瓦積기단을 하였다. 동·서화랑지의 외곽에는 금당지와 동서축을 맞추어 놓인듯한 건물지가 각 한개소씩 있어 화랑밖에도 建物區가 있었던 것 같다. 이렇게 橫으로 여러 건물區를 이루는 配置例는 고구려의 定陵寺址나 익산 미륵사지 그리고 고려의 興王寺址나 佛寺逸址등 흔히 조영됐던 형식인것 같다. 이 사지의 발굴조사에서 출토된 瓦堂은 八葉素瓣 蓮花紋 瓦堂과 橡木瓦 그리고 中空有紋전등 이다.

東南里寺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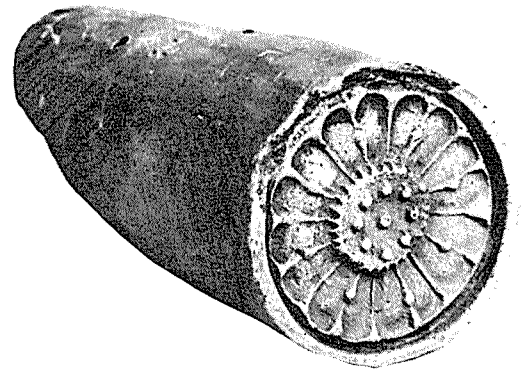
이 사지는 부여읍 동남리에 위치하고 있는데 1938년 역시 일본인 石田에 의하여 발굴조사 되었다. 남향한 가람에다 남에서부터 중문지, 금당지, 강당지가 남북축선상에 놓이고 중문과 강당지를 연결하는 화랑지가 矩形의 가람 중심곽을 이루고 있다. 가람의 동서폭은 고려적으로 환산하여 약 230尺이고 중문과 금당지의 중심 거리와 금당지와 강당지의 중심거리는 다같이 108尺으로 합하여 216尺이다. 이 사지에서는 다른사지와는 달리 塔址가 없었던 것이 특이하다. 강당양측 곁에는

| 王 名 | 年 代 | 記 事 内 容 |
|--------|----------|---------------------|
| 溫祚王 13 | B. C. 6 | 九 月 立城闕 |
| 溫祚王 15 | B. C. 4 | 春正月 作新宮室 儉而不陋 華而不侈 |
| 肖古王 23 | 188 | 春二月 重修宮室 |
| 比流王 30 | 333 | 秋十月 修宮室 |
| 辰斯王 7 | 391 | 春正月 重修宮室 穿池造山以養奇禽異卉 |
| 文周王 3 | 477 | 春二月 重修宮室 |
| 東城王 8 | 486 | 秋七月 重修宮室 |
| 武王 31 | 630 | 春二月 重修泗批之宮 |
| 義慈王 15 | 655 | 春二月 修太子宮極修麗立望海亭於王宮南 |
| 溫祚王 元 | B. C. 18 | 夏五月 立東明王廟 |
| 溫祚王 17 | B. C. 2 | 夏四月 立廟 以祀國母 |

| 寺名 | 所 在 | 文 獻 | 内 容 |
|--------|-------------|------------------|---|
| 大通寺 | 公州, 斑竹洞 | 三國遺事(성왕 5) | 현존 유구로 推定講堂址와 幢竿支柱, 石槽 등이 있다. |
| 興輸寺 | 公州 | 동국여지승람 李能和, 불교통사 | 聖王代에 謙益이 律典을 번역 |
| 四穴寺 | 公州, 態津洞 | 신증동국여지승람 | 조사된바 塔址와 建物址노출, 사지북쪽 약 100m 거리에 석굴이 있음. 〈西穴寺〉〈三寶〉銘 瓦片. |
| 水原寺 | 公州, 玉龍洞 月城山 | 삼국유사 신증동국여지승람 | 1978년 塔址: 확인, 蠟石製 小塔 출토 및 통일신라시대 瓦片 출토 |
| 王興寺 | 扶餘, 規岩面 | 삼국유사, 삼국사기 | 사지 중심부에 방형초석 잔존 고려시대의 〈王興〉銘 기와 출토 |
| 虎岩寺 | " | 삼국유사, 여지승람 | 방형초석, 백제기와 등 발견 |
| 聖住寺 | 保寧郡, 聖住山 | 삼국사기, 삼국유사 | 烏會寺, 烏舍寺로 기록되었으나 이것이 聖住寺의 전신임 |
| 漆岳寺 | 扶餘? | 삼국사기 | 金剛寺址와 같은 것으로 보는 학설이 있음 |
| 道讓寺 | 不明 | 삼국사기 | 〈... 風雨暴至震 天王道讓二寺又震 白石寺講堂〉이라함 〈天王〉銘 기와가 東南里와 舊衛里에서 나왔다 함. |
| 資福寺 | 불명 | 삼국유사 | 현 王宮里 石塔 서쪽 약 1km 거리에 사지가 있어 塔址 心礎가 있음 |
| 帝釋寺 | 益山, 金馬 | 동국여지승람 觀世音應驗記 | 武王이 어렸을때 마를 캐다 金을 얻어 붙여진 이름이며 報德城 남쪽에 있다고 하는데 그 위치는 불명 |
| 五金寺 | 益山, 金馬 | 동국여지승람 臥遊錄 | 현 修德寺의 근처로 보고 있으며 여기서 백제 기와가 출토되었다. |
| 北部 修德寺 | 忠南 禮山 | 삼국유사 | 현 修德寺의 근처로 보고 있으며 여기서 백제 기와가 출토되었다. |
| 普光寺 | 全州 | 동국여지승람 | 백제의 대가람이라 하나 불명 |
| 彌勒寺 | 益山, 金馬 | 삼국유사, 삼국사기 | 별도 기술할 것임 |
| 獅子寺 | 益山, 金馬 | 삼국유사, 여지승람 | 현재 獅子庵이 있으나 확인할 수 없음 |
| 岩 寺 | 서울 岩寺洞 | 동국여지승람 | 사지를 아직 확인하지 못함 |



▲ 東南里出土 蓮華文 礎石



▲ 東南里出土 蓮華文 礎石

군수리사지에서와 같이 鐘經樓址를 두고 동·서화랑이 이 건물지에 연결되고 있다. 또 중문지의 남쪽에 좀떨어져서 남문지로 보이는 유구가 발견되어 우리나라 사지조사에서 처음으로 남문지가 확인된 유구이기도하다.

金剛寺址

이 사지는 扶餘郡 恩山面 琴公里에 위치하고 있다.

1964년과 1966년에 국립중앙박물관에서 발굴조사 하였는데 가람이 東向을 하고 있음이 다른 백제 사원 가람과 다른 특징이라 할 것이다. 이렇게 동향으로 가람을 이룬것은 지형에 의한 것인지 혹은 敎理에 의한 것인지 확인할 수는 없지만 비교적 평평한 평지에 놓인 이 사지는 반드시 지형에 구애되어 동향을 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다. 사지 중심과의 규모는 고려적으로 환산하여 남북 폭이 약 215尺이고 중문에서 강당지까지의 중심 거리가 약 290고려척으로 전술한 군수리 사지의 중심과 규모와 거의 비슷하다. 건물의 배치는 역시 백제의 전형적인 一塔式 가람을 동서축에 맞추어 형성하여 동쪽에서 부터 중문과 탑, 금당, 그리고 강당지가 놓이였다. 중문에서 탑지까지의 중심거리는 67고려척이고 금당지의 유구는 후대의 것과 중첩되어 있었지만 탑지와 초창기의 금당지까지의 중심거리는 65고려척으로 계산이 되어 역시 이 두개의 거리가 거의 같았음을 추측할 수 있었다. 또 금당지와 강당지와의 중심거리는 135고려척이 되어 동에서 부터 건물간의 거리의 비례는 1 : 1 : 2가 된다. 탑지는 여러번에 걸쳐 중창이 되었음을 알 수 있었는데²¹ 초창기의 기단은 황갈색의 점질토를 이용하여 版築을 하여 다졌는데 그 한층의 두께는 1~6cm를 이루었고 다짐봉의 직경은 약 3~4cm 정도로 추정된다고 한다. 이 기단의 규모는 한번이 고려적으로 환산하여 약 40尺이며 판축 두께 6尺까지 확인할 수 있었다 한다. 이 목탑지 중앙 지표면에서 心礎部로 보이는 자연암 삭도층이 있었는데 그 형태의 직경이 약 6.6곡척이고 중앙의 기둥구멍으로 추정되는 시설의 직경은 약 4척 그 깊이는 2.2척이었다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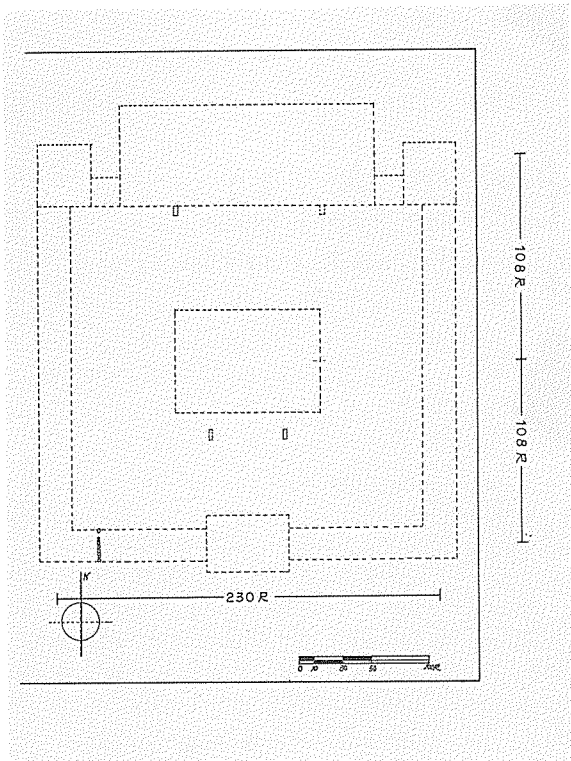
이 사지에서 중문지와 강당지 양측으로 화랑지가 연결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강당지

옆에 鐘經樓址가 없이 화랑이 직접 강당지에 연결되는 것이 특징이다. 금당기단의 규모는 고려적으로 환산하여 남북길이가 54尺 동서폭이 40尺이 되어 그 邊長의 비가 1.35 : 1이 된다. 이 금당지에는 기단 지대석 일부가 원형대로 남아 있었는데 익산 미륵사지의 것과 같이 지대석 상면에 면석을 세워놓은 턱을 안쪽으로 깎아내고 또 기단의 모서리에서만 隅柱를 세웠던 흔적을 볼 수 있었다. 화랑지와 강당지에서 발견된 초석은 원형초석으로 그 밑을 받친 積心石이 판축의 표면 위에만 놓여 그리 두껍지않게 깔려 있었다. 그러므로 이 원형초석도 후술한 익산 미륵사지와 같이 밑면에 뾰족한 팽이형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강당기단의 규모는 길이가 고려적으로 환산하여 130척이고 폭이 54척이며 이 강당지 후측 중앙에는 뒤에 가로 놓인 승방지와 연결되는 듯한 복도지가 노출되었다. 승방지의 규모는 길이가 250고려척 폭이 40척으로 환산되어 그 규모가 상당히 컸었음을 알 수 있다. 이 사지 발굴조사에서 출토된 瓦堂은 8瓣 蓮花紋에 瓣端 중앙에 꽃잎이 反轉되는 것과 반전되지 않고 꽃잎이 두둑하게 둥글린 것 또 고구려계의 尖端을 이룬 것등 여러 종류가 출토 되었는데 자방에는 중심부에 한개의 蓮子를 놓고 그 주위에 5개~8개의 蓮子를 두고있는 것 등이 있다. 그중에는 연관을 線刻한 것에 周緣에 珠紋을 한것도 있어 백제 6세기부터 통일신라시대까지의 유물이 출토되었다. 이외에도 암막새 기와와 연목와가 출토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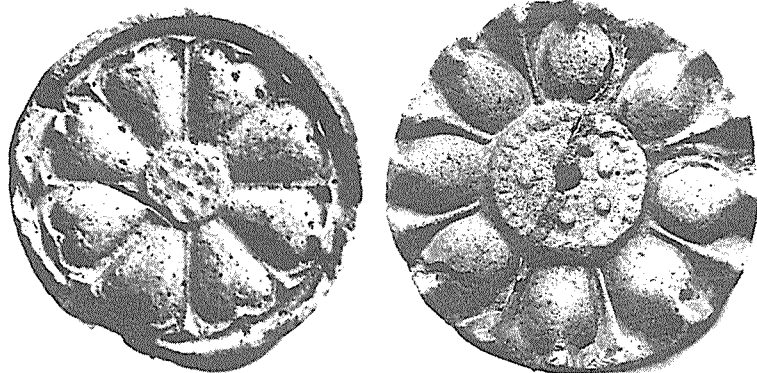
定林寺址

이 사지는 부여읍 東南里에 있다. 1942년과 1943년에 걸쳐 일본인 藤澤一末에 의하여 부분적으로 발굴조사 되었는데 당시 <太平八年戊辰定林寺大藏當草>라는 銘文瓦가 출토되어 정림사지임을 알 수 있었다. 사지에는 백제 5층석탑과 그 북쪽에 강당지로 보이는 곳에 고려시대의 것으로 보이는 石佛坐像이 남아있었다. 1979년과 1980년 충남대학교에서 본격적인 발굴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 伽藍의 성격을 알 수 있었는데 남향한 一塔式 가람으로서 남쪽에서부터 중문지와 5층석탑, 금당지,

강당지 등이 남북축선상에 놓였고 강당지 좌우에는 작은 건물지가 각 한개씩 놓였던것 같고 중문과 이 건물지 사이에 화랑지가 연결되었다. 또 중문지 남쪽에는 남문지가 있었으며 그 앞 양쪽에는 연못지가 露出되었다. 중심과의 규모는 동서폭이 고려적으로 130尺 중문에서 강당지까지의 중심거리가 220고려척으로 되어 비교적 폭이 좁고 긴 구획을 이루고있다. 중문지에서 석탑까지의 중심거리는 고려적으로 55척이고 석탑에서 금당지사이 중심거리는 75고려척 으로서 전술한 사지들과 같이 등거리가 아니고 탑에서 금당지까지의 거리가 더길다. 또 금당지에서 강당지까지의 중심거리는 90고려척이 되어 거리의 비례가 1 : 1.36 : 1.64가되어 좋은 비례를 보이지 않는다. 그런데 발굴보고서³⁾에 의하면 이곳에서 출토되는 유물로 보아 6세기에 속하는 것이 초창기의 것으로 추정되는데 석탑의 樣式은 7세기때 세운 것으로 추정하는 익산 미륵사지의 석탑보다 앞설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석탑은 정림사의 초창기의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후에 重創時에 목탑대신 세워진 것이 아닌가 한다. 이때 탑의 위치를 바꾸었다면 위와 같이 맞지 않는 비례가 생길것이다. 만일 중문과 탑과 금당의 각중심거리를 같게 수정한다면 그 비가 1 : 1 : 1.4로서 조화를 이룰 것이다. 여기서 특기할 것은 금당지의 기단이 상·하로 2중기단 이었으며 소위 遮陽間이 있었다고 한다. 主礎가 놓였던 흔적으로 보아 柱間은 동서 7칸이고 남북5칸 이었다. 그러므로 상층기단위의 본래의 금당은 5칸×3칸의 건물로 추정된다. 기단규모를 정확히 확인하기는 어렵지만 보고서에 기술한것으로 보아 동서길이 15.15m 남북폭 10.2m로서 변장의 비례가 1.5 : 1이된다. 강당지는 중창으로 인하여 유구의 교란이 많고 중창건물지의 주칸은 7칸×3칸으로 추정된다고 한다. 여기서 출토된 와당의 문양은 백제시대의 單瓣 8엽 연화문과 통일신라시대의 複瓣 연화문 그리고 서까래기와 암막새와 치미편 등 많은 유물이 출토되고 앞에서 말한 銘文瓦도 출토되었다. 와당의 양식은 앞에서 기술한 금강사지의 것과 거의 시대를 같이하는 것들로 추정되거나 이보다 약간 앞서는 것들이 있어 이들의 창건 시기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믿어진다. 이곳 석탑에 대하여는 다음 미륵사의 석탑을 論할때 기술하기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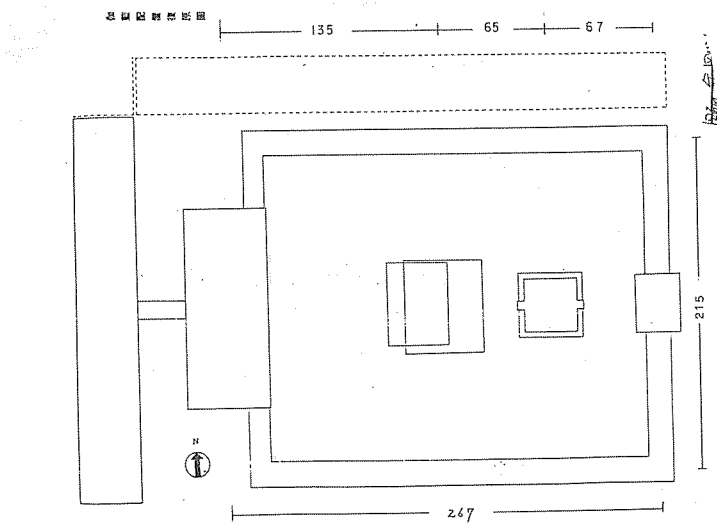


圖面 2. 扶餘 東南里寺址 伽藍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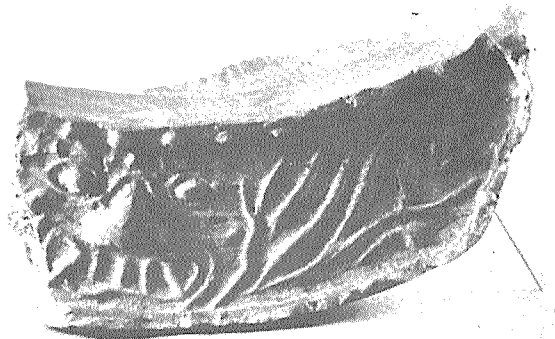


▲ 金剛寺址 出土 蓮華文 舄막새

▲ 金剛寺址 出土 綠札 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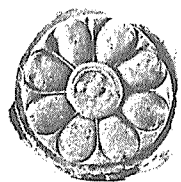


圖面 3. 金剛寺址 伽藍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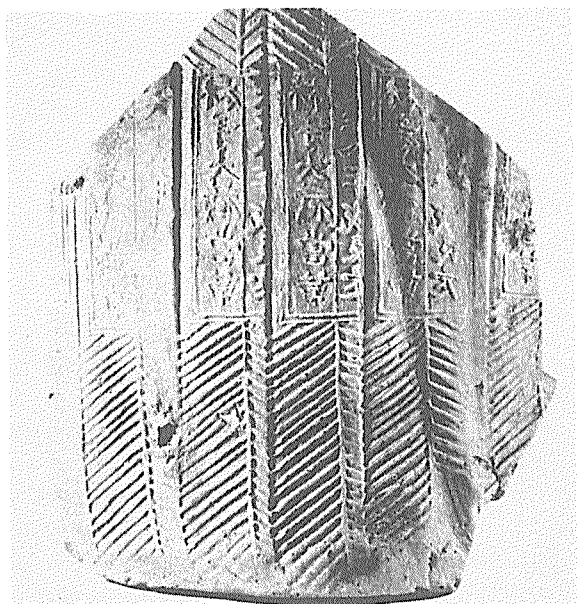


▲ 定林寺址 出土 암막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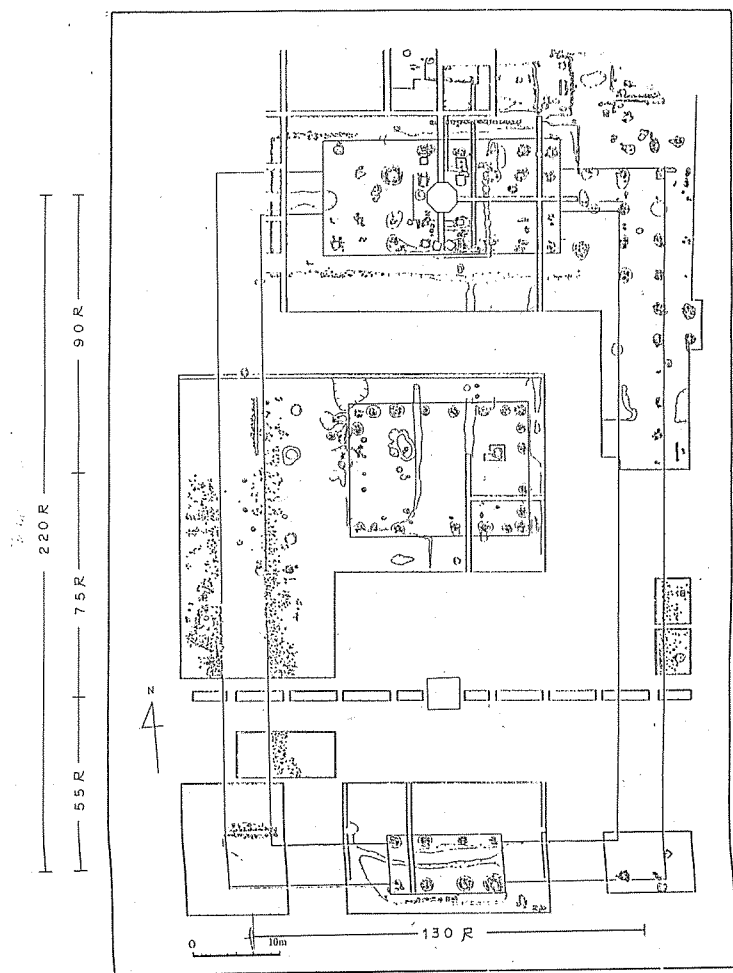
定林寺址 方形礎石 ▼



▲ 定林寺址 出土 單瓣入葉 蓮華文 舄막새



▲ 定林寺址 出土 銘文瓦



圖面 4. 定林寺址 伽藍圖